



### 신세대 의경들의 쩡~한 전우애

신세대 의경은 빵을 먹는 모습도 참 멋있습니다. 서로 빵을 먹여주며 가슴 쩡~한 전우애(?)를 실천하는 두 의경의 친진난만한 표정에 왁지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며칠 동안 하늘에서 쏟아진 눈꽃송이에 도시가 꽁꽁 얼어버린 지난 2일 눈으로 덮인 거리에 나갔다가 만난 풍경입니다.

귀마개에 장갑까지 중무장을 한 채 광주시 서구 유덕동 도로가에서 폭설 복구 작업에 열중하던 의경들이 잠시 틈을 내, 눈에 젖은 빵을 저리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겨울 눈 소식을 기다렸지만 무심하게도 이렇게나 많이 '평평' 쏟아져 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말과 연초에 내린 폭설로 호남지역에서만 5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든든한 군인아저씨들이 두 팔 벗고 나서 피해복구에 나섰지만 아직도 완전복구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응달길에 남아있는 눈더미를 보면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명기자 mjna@kwangju.co.kr

### I love MY student



이희규

### 수업도 연극처럼 재미있게 하라

숨이 막혀 버릴 것 같은 침묵의 공간, 빛은 없다. 쏟아지는 시선들의 집중, 그리고 오, 저 동굴의 터널에 드디어 내리쬐는 빛의 블랙홀..

연극은 늘 그렇게 시작되곤 했다. 침 하나 꿀 각 삼키기도 어려운 막이 오르는 순간, 지도 교사에겐 버릇처럼 심장의 두근거림이 귀밑 동맥까지 육신거린다. 하물며 무대에 자신을 드러내야 할 아이들에겐 그 흥광거림이 어찌 하랴.

다행이 메그 역을 맡은 여학생은 자연스럽게 첫대사를 내뱉었고 슬기도, 세인기도 연습할 때보다 더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빨래집게로 코를 집는 현정이 무대에 바랍처럼 모습을 드러냈

을 때, 예상대로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려 주었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서 우리 학교 연극반 '연하의 '작은 아씨들'은 그렇게 막이 올랐다.

그리고 관객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역을 맡은 배우들과 뒷바라지를 한 스태프들이 뒤엎켜 우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 감동 표현인 동시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스스로의 한풀이 이리라.

객석의 내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고 그들의 행복을 보는 나의 마음도 그대로였다. 더구나 시간 내어 찾아온 연극반 선배들마저 같이 울고 웃으며 격려해주는 모습이 이리..

부지런히 세트를 치워야 했다. 힘이 요구되는 이 작업은 여학생들에겐 힘이 부친다. 모든 작업을 아이들 스스로 해내야 한다. 망치를 들고 분해된 세트를 나르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분장을 다 지우고 뒷정리를 깔끔히 하는 것도 반드시 배워야 할 요소다.

아무리 화려했던 무대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작업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던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연극은 분명 잘 짜여진 한편의 인생이다. 재미와 스타일, 공포와 연민이 상존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다. 그것이 무대에서 배우를 통해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무대가 삶의 축소판이든, 과장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무대에 사람이 있고 사람다운 숨결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연극의 행위가 끝난 뒤에든 그러한 삶의 연속은 계속 된다는 사실이다.

연극반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게 그것이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이 없다'라든가, '무너지는 교실 현장'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날로 황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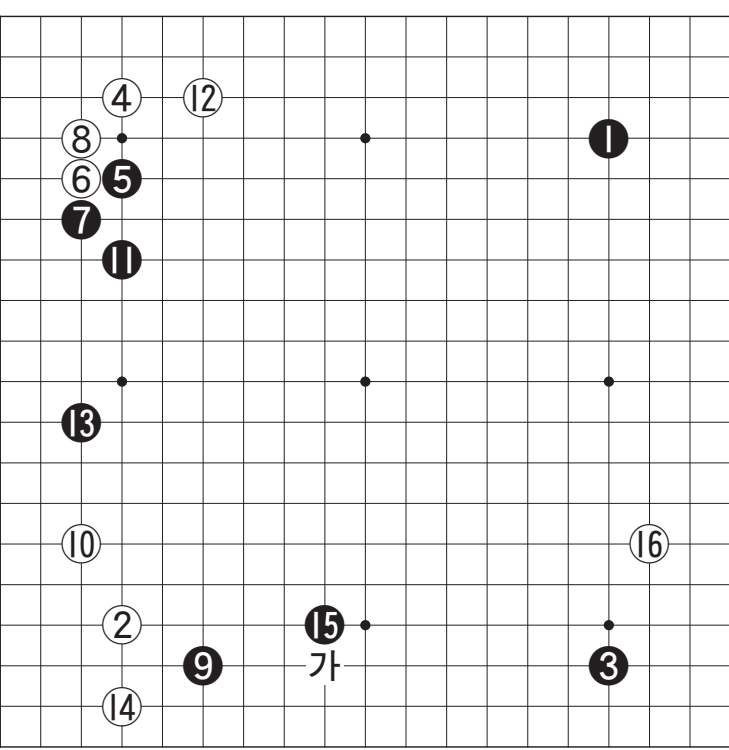
해지는 듯한 일선 교육의 현장은 참으로 씁쓸할 때가 많다. 그러한 현장에 무대는 삶의 향기와 활력을 불어 넣는다.

수업 시간 내내 즐기던 아이도, 학교가 싫다고 발버둥치던 아이도 무대는 신기하게도 살아 움직이는 아이로 변모하게 한다. 삶의 진실을 관통하는 언어, 대화를 통한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서 아이들은 참다운 삶을 간접 체험하는 것은 아닐까. 노래와 춤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아닐까.

함께 탐험해 만드는 과정에서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체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도, 아니 수업만이라도 연극처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날로 심드렁해지고 초점을 잃어가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연극처럼 신나는 교실을 생각하는 것은 진정 꿈에서나 가능한 일일까.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을 일상에서도 만들 순 없을까.

졸업하고서도,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되고서도 좋은 '선생님 안녕하세요'를 물어도 연극반 초창기 학생들을 그리면서, 나는 오늘도 새해, 우리 학교 연극반의 무대를 그린다.

(살레시오여교 교사)



**제5회 KBC사장배 청소년 바둑축제 1부(1~16)**

**중고등부 결승전**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지난 해 11월 10일 염주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이지역 청소년들의 바둑 축제인 제5 KBC사장배 바둑대회가 이지역 청소년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바둑보급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벌써 5회째로 그동안 많은 바둑 꿈나무들을 배출해 이지역 바둑보급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이 바둑은 중·고등부의 결승전으로 문성중학교 1학년 재학생인 강지수군과 전자공고 1학년 김근홍군의 대결이다.

강지수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지역의 수많은 바둑대회를 휩쓸다시피 한 초등부의 최강자 출신으로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이 즐비한 선배 중·고등학교의 강자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진출하여 이 대회 최대의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다.

김근홍군 역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당당히 결승에 진출하여 중·고등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누가 우승컵을 차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판이다.

혹 15는 '가가 보통이며 백 16까지 모범적인 포석이 전개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전자랜드배 4강행**

'돌부처' 이창호가 제5기 전자랜드배 백호왕전 4강에 올랐다. 이창호는 7일 서울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8강전에서 목진석 9단을 누르고 가장 먼저 4강에 안착했다. 이창호는 한종진-조한성이 치르는 8강전의 승자와 9일 준결승전을 갖는다.

앞서 이창호는 양건 8단, 강지성 7단, 최규병 9단 등을 예선에서 연거푸 격파하며, 새해 첫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전자랜드배에 참여하는 만26~만50세의 프로기사 리그인 백호왕전은 각 10분 초읽기 40초 3회, 상금은 우승 1천만원, 준우승 300만원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시원하고 진한 멸치국물 만들기**

출출한 겨울 밤 야식으로 따뜻한 국수 한 사발 어떨까요? 깔끔한 멸치국물에 말아먹는 국수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머리와 내장 제거하기 : 국물용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끓여야 쓴맛이 나지않아 깔끔한 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기름 없이 살짝 볶기 : 멸치를 국물에 넣기 전에 냄비를 달군 뒤 살짝 볶아주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채 볶아주면 멸치 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마 불리기 :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마도 넣어주세요. 먼저 젖은 행주로 하얀 기무를 닦아낸 뒤 양쪽에 가윗집을 내주세요. 준비된 다시마는 30분 정도 물에 불린 뒤 끓여주면 됩니다.

▲끓이기 : 국물이 '팔팔'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불을 약하게 한 뒤 뚜껑을 연채로 10분가량 더 끓여주세요. 이때 거품을 걷어내면서 끓여주면 시원하고 진한 멸치국물이 완성됩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8일(음 12월 1일 丁未)**

**子** 36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 준비, 48년생 오후에 화재주의에 신경을 쓰라, 60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주라, 72년생 불의의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84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14, 28

**丑** 37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 질것이니 준비를 잘하고 있이라, 49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61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하라, 73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안정을 취하라, 85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 없다, 행운의 숫자: 24, 44

**寅** 38년생 아내가 원이 드니 아내를 살펴봐라, 50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2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4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21, 32

**卯** 39년생 수하인과 금전거래는 불항거래가 될 수도 있다, 51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63년생 조급한 태도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5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18, 35

**辰** 40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이니 문단속을 잘해라, 52년생 남과 말다툼은 시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64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따라 없다, 76년생 저녁 늦게 귀중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16

**巳** 41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다, 기쁨은 미미하다, 53년생 숙련숙련로 추진하면 대세가 생긴다, 65년생 외래내려 내 집만 것에 마음을 쓰라, 77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편안하리라, 행운의 숫자: 01, 43

**午** 42년생 숨이 가쁜 하루로다, 54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66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78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11, 41

**未** 43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라, 55년생 근처에서 괴로움이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67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진전하라, 79년생 절경은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20, 38

**申** 44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라, 56년생 부부간에 다양한 시간을 마련하라, 68년생 자녀의 고집을 먼저 생각해보라, 80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행운의 숫자: 02, 31

**酉** 45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해라, 57년생 친척의 보증을 서지 마라 흥한일이 생길라, 69년생 충추고 노래를 하니 즐겁기만 하다, 81년생 오늘은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을 마라, 행운의 숫자: 23, 42

**戌** 46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용감하게 진행하라, 58년생 뒤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70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82년생 오전은 흥하나 오후는 길하다, 행운의 숫자: 12, 30

**亥** 47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커리큘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9년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겨주리라, 71년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83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22, 3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수은은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b>굿모닝 잉글리쉬 &lt;1071&gt;</b></p> <p><b>We've met</b> 우리들은 이미 전에 만났어요</p> <p>A : Bob, this is Amy. B : We've met. A : Oh, I didn't realize you knew each other. B : We met last week.</p> <p>A : Bob, 이 사람은 에이미야. B : 우리들은 이미 전에 만났어요. A : 아, 제가 몰랐군요,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시다. B : 지난주에 처음 만났었습니다.</p> <p>* meet 처음으로 만나다 * realize : 깨닫다 *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 I didn't realize how hard that assignment was. * 전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 I didn't realize that I was going to be there.</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b>오하오우 니혼고 &lt;1071&gt;</b></p> <p><b>どのくらい 日本語を習(なら)っていますか。</b> 일본어를 어느 정도 배웠습니까?</p> <p>A : 金さん,日本語が話(はな)せるようになりましてね。 B : いいえ `まだ 下手(へた)です。上手(じょうず)には話(はな)せません。 A : どのくらい 日本語を習(なら)っていますか。 B : まだ 六(ろっ)か月(げつ)ぐらいしか 習(なら)っていません。 A : 김씨, 당신은 일본어를 할 수 있겠군요. B : 아니요, 아직 서툰니다. 능숙하게는 못 합니다. A : 일본어를 어느 정도 배웠습니까? B : 아직 6개월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p> <p>下手(へた)다 : 서투르다 上手(じょうず)다 : 능숙하다 習(なら)う : 배우다, 익히다</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b>니하오 쑹구위 &lt;48&gt;</b></p> <p><b>你过年多大了?</b> 너 설 쇠면 몇 살이야?</p> <p>A: 你过年多大了? Nǐ guònián duō dà le? 니 구안년 다투오 다투오? B: 我过年 3 1 岁, 你呢? Wǒ guònián sān shí yī suì, nǐ ne? 와 구안년 셴쓰네 수비, 니 네? A: 我也过年 3 1 岁。 Wǒ yě guònián sān shí yī suì 와 다투오 구안년 셴쓰네 수비. B: 哇! 跟我同岁啊。 Wa! gēn wǒ lóngsuì a. 와! 셴 쑹투오오 다투오. A: 너 설 쇠면 몇 살이야? B: 설 쇠면 31살이야? A: 나도 설 쇠면 31살인데, B: 와! 나랑 똑같은데.</p> <p>过年 [guònián] 설 쇠는데 跟 [gēn] 와, 과</p> <p>&lt;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gt; ☎ 383-1605</p>	<p><b>한자 이야기 &lt;688&gt;</b></p> <p><b>무자년(戊子年)</b> 다섯째 천간 무, 쥐 자, 해 년</p> <p>올해는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하면 무자년(戊子年)에 해당된다. 육십갑자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십간(十干)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십이지(十二支)의 조합(組合)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12 지는 각각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12가지 동물을 의미한다.</p> <p>따라서 무자년은 쥐의 해가 된다. 쥐를 '아들 자(子)'로 쓰는 이유는 '자(子)'가 본래 머리가 크고 수발이 부드러운 유아(幼兒)를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젊다' 또는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어 12 지의 처음에 사용된 것이다.</p> <p>쥐는 곳간의 곡물을 축내고 배를 굶아먹는 이름지 못한 동물이지만, 번식력이 왕성하여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민첩하고 부지런하여 재물을 잘 모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다복(多福)의 동물로 받아들여졌다.</p> <p>올 일년은 쥐를 귀엽고 예쁘게 만든 캐릭터 상품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수레 위 커다란 쌀가마니 위에서 뽀뽀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서생원(廩生員) 일가(一家)의 조각 작품을 책상 언저리에 얹어놓고 풍요로운 일 년이 되길 기원한다.</p> <p>&lt;한예원(韓藝媛)&gt;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